

## 고3 갈수록 '비실'

임시 스트레스 탓… 초중생도 '약골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체력검사 수치가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두고 각종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3 학생들의 체력저하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0~2008년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 학생들의 1~2급 비율은 33%로 2000년 41%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8%포인트 줄었고, 최하등급인 4~5급 비율은 같은 기간 31%에서 42%로 11% 포인트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50m달리기(9.22→9.39초), 팔굽혀펴기(31.27→30.8), 팔등길드기(35.44→34.8), 체지방비교기(17.40kg→17.45kg), 암다리(13.84→12.72cm), 오른손잡기(7.932초→8.017초) 등이다.

연도별 분석에서도 체력저하 현상은 뚜렷하게 확인됐다. 2002~2008년 1~2급 비율변화를 보면 38%(2002년)→38%(2004년)→33%(2006년)→33%(2008년), 4~5급은 35%→36%→40%→42% 등으로 1~2급 비



율은 감소했지만 4~5급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2000년과 최근 2~3년간의 체력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고3 학생의 체력저하 현상이 고1~2학년과 초·중학생에 비해 유난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3 남학생(여)은 1~2급 비율이 2000년 53(42)%였지만 2006~2008년에는 33(25)→27(25)→28(26)% 등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4~5급 비율은 2000년 22(30)%에서 45(51)→49(51)→49(52)% 등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교과부 측은 학생체력이 매년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서구형 식습관과 일시로 인한 체육활동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 쌀 대북지원 늘려야 재고 숨통

인도적 차원 2년여만에 재개

DJ 정부 40만t 보다는 적을듯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의 쌀 대북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30만~40만t 규모보다 크게 축소된 수만t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국내 쌀 재고량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지원량을 늘리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6일 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전망이어서 대북 식량지원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십만t 규모의 쌀·비료 지원은 북핵·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만t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 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은 '순수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간주해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 차원의 소규모 직접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대

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을 지원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만~3만t 수준의 식량 지원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지역 농민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쌀 재고량 차분과 원활한 쌀 수급을 위해서는 대북 쌀 지원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07까지 매년 40만~50만t 규모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던 대북 식량지원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전남지역 쌀 재고량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6년 7만4천t에 불과했던 재고량은 2007년 12만3천t으로 늘었고, 2008년 14만1천t으로 급증했다. 불과 2년 사이 재고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 북한에 지원하던 식량은 통일부가 국내 쌀 수급 현황을 총괄하는

농림부와 협의해 북한에 전달할 국내 재고 쌀 매입 규모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국내 쌀 재고 물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 진전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 등이 필요하겠지만, 대북 쌀 지원 규모를 1만~3만t 수준 보다는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다. 또한, 전남도의회도 이날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면서 대북 쌀 지원 재개와 함께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는 것은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정책에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지원량이 수만t에 불과할 경우 쌀 재고의 숨통을 트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치원·고교까지

장애인 의무교육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 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장애 아동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등의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뜻만평

- 김종우



귀찮으니 그냥 '양과총리'로 불러!

## 道政소식, 크게 들으세요

시각장애인·노인 대상 '인쇄물 음성변환시스템' 도입

시각장애인과 노인, 문맹인 등 도 쉽게 전남도정 소식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전남도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 한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도민 등이 전남도청의 각종 정보를 담은 도정소식지인

'전남새롬'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출력 변환 생성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것으로, 인쇄된 활자를 소리로 풀어 들려주는 장치다. '전남새롬' 소

식지 오른쪽 위 가로 1.8cm 세로 1.8cm 크기의 시스템 마크에 소식지 1쪽 분량이 바코드 형태로 압축·저장되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보급된 음성인식기를 이 곳에 가져다 대면 저장된 내용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다.

오주승 전남도 공보관은 "기존 점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다문화가정 주부, 문맹자 등이 도정소식을 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전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앞 광장에서 '쌀값 안정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 인도적 차원 2년여만에 재개

DJ 정부 40만t 보다는 적을듯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의 쌀 대북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30만~40만t 규모보다 크게 축소된 수만t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국내 쌀 재고량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지원량을 늘리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됐다.

특히 16일 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을 지원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만~3만t 수준의 식량 지원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지역 농민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쌀 재고량 차분과 원활한 쌀 수급을 위해서는 대북 쌀 지원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 진전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 등이 필요하겠지만, 대북 쌀 지원 규모를 1만~3만t 수준 보다는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다. 또한, 전남도의회도 이날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면서 대북 쌀 지원 재개와 함께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는 것은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정책에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지원량이 수만t에 불과할 경우 쌀 재고의 숨통을 트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0~25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3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이튿날인 21일 응웬MING 씨에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능 등 마잉 당 서기장, 응원 린 중총리 등과 면담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지원·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방문한 뒤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광물 자원 공동연구, 양국간 범죄인 인도 협정 체결 등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24~25일 태국 후아이엔에서 열리는 한·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해

을 초청한 '신'(新) 아시아 외교구상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亞생태문화 국제콘퍼런스' 서울서 개최

### 문화수도 추진단

참가해 베트남 탁관, 몽골 바트솔비르, 한국 영산포, 터키 샤크란불루 등 아시아의 생태마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국제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설 아시아문화정보원 운영 준비를 위한 연구사업으로 '제2회 아시아생태문화 국제콘퍼런스'를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연다.

'아시아의 생태적 삶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8개국 연구자들이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세인트 포 골프&리조트 인재 초빙 안내

아시아 최고의 종합 리조트인 Saint Four와 함께 한국골프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모십니다.

### 1. 모집부분

모집부서	모집업무	모집구분	인원
식음료파트	매니저/캡틴	경력	0명
	웨이터/웨이어对不起	경력/신입	0명

### 2. 복리후생

- 기숙사제공, 출퇴근 차량지원, 1일 2식 제공 외
- 24 대 보험가입 및 각종 경조사휴가
- 3) 기타 내부 복리후생규정에 의거함

### 3. 음시자격

- 1) 군필 및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3) 해외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 제주도 거주가능자

### 4) 등록 업무 경력자 우대

### 4. 전형방법

- 1) 차자 서류심사
- 2) 차자 면접 및 채용신청서(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5. 채용서류

- 1) 이력서(반영형판 사진부착, 무족상단 지원분야, 회망연봉 명기)
- 2) 자기소개서

###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6. 서류